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68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11.27~2025.12.03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8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2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오영훈, 심사(평가/성과), 내란, 기반, 수출
경제·관광	가격, 감귤, 기반, 수출, 성과
지역·사회	학생, 불법, 야적장, 차량, 중국

※ 분석 기간 : 25.11.27.~25.12.03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 계엄 1주년 메시지 - 우주산업 생태계 비전 - 싱가포르 수출 판로 개척
	심사(평가/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회 예산안 대폭 삭감 - 칭다오 항로 투자심사 논란 - 국토부 등 외부기관 평가
	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 비상계엄 1주년 규탄 - 도지사 내란 동조 의혹 공방 - 4·3과 내란의 역사적 연결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 1차산업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크루즈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축산물 싱가포르 진출 - 칭다오 화물선 항로와 물류 -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산 노지감귤 가격 호조세 지속 - 제주 관광 물가 안정화 지수 도입 추진 -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가격 대응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산 노지감귤 본격 수출 개시 - 고당도·저산도 감귤 생산 품질 관리 - 감귤 가공 산업 및 품종 다양화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관광 및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 수출 물류 혁신 및 해외 거점 확대 - 지속 가능한 농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및 항공기 부품 수출 주도 - 농수산물식품 수출 시장의 외연 확장 - 수출 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 강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자체 중 수출 증가율 1위 달성 - 제주 관광 4대 핵심 사업 추진 성과 - 공공 기관 및 지역 사회 협력 성과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 - 제주 농어촌 유학 활성화 - 미래 교육 및 복지 지원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대상 불법 관광 영업 - 중국산 의약품 불법 유통 - 산림 및 가축 불법 훼손
	야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토평공업단지 대형 화재 - 화재 원인 조사 및 안전 관리 - 우도 천진항 렌터카 돌진 참사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 강풍 피해 및 음주 운전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질서 위반 및 미등록 체류 - 무면허 의료 행위 적발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11월 27일~12월 3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28건임
 - 정치·행정 분야 319건, 경제·관광 192건, 지역·사회 317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오영훈, 심사(평가/성과), 내란, 기반, 수출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 계엄 1주년 메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제주 4·3이 진실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우리 사회에 내란의 그늘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또한, 계엄 당시 제주 관광객 급감 등 지역 경제 위기를 겪었으나 민주정부 출범 후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연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 계엄 당시 청사 폐쇄 조치와 관련하여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한 사안에 대해, 제주도정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에
-------	-----	--

정치·행정	오영훈	<p>나선 상황임. 오 지사는 서울 국회에서 열린 특별 좌담회에 참석해 내란 종식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도민 사회의 혼란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p> <p>- 우주산업 생태계 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지사는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열린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제주가 '뉴 스페이스의 심장'으로 재탄생했음을 선포함. 위성 제조와 발사가 한곳에서 가능한 독자적인 우주산업 공급망이 완성되었음을 강조하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인프라와 결합해 제주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함. · 우주센터 준공을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실제로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등 지역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고 있음을 피력함. 향후 위성 데이터를 농업,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는 '위성정보 활용 클러스터'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우주산업 부가가치 극대화에 주력할 계획임. <p>- 싱가포르 수출 판로 개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지사는 제주항에서 열린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첫 수출 선적식에 참석하여, 제주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싱가포르로 축산물을 수출하게 된 성과를 치하함. 이는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획득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공조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강조하며, 향후 홍콩에 이어 동남아 전역으로 수출 판로를 넓히기 위한 마케팅 지원 강화를 약속함. · 싱가포르 현지 마트와 식당 등 유통망 확보를 위해 현지 판촉 행사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을 지속할 것을 천명함. 이번 수출이 제주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제주산 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도민들에게 전달함.
	심사(평가/성과)	<p>- 도의회 예산안 대폭 삭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2025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41억 원을 감액함. 특히 환경도시위원회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 70억 원과 압축도시 용역비 등을 삭감했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청다오 향로 손실보전금 등을 삭감하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제동을 걸어 예결위 최종 심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 도의회는 세수 부족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음을 강조함. 행정시 예산의 경우 읍면동 시설비 등이 축소된 반면 도 본청 예산 위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강도 높게 심사하고 있음. <p>- 청다오 향로 투자심사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청다오 국제화물선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절차적 위반이라는 지적이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됨. 도의회는 재정 부담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p>심사(평가/성과)</p>	<p>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나, 제주도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므로 심사 제외 대상이라 주장하며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맞서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전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도의회는 화물선 운항의 경제적 타당성과 농산물 수입에 따른 1차 산업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의무 부담 행위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와 투자심사 면제 여부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공방이 이어지며, 향후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함. <p>- 국토부 등 외부기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추진한 '구좌마을여행사'와 '제주문화중개소' 사업이 정부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VIS) 우수 콘텐츠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모델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이는 제주형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됨. · 제주보건소가 질병관리청 주관 감염병 관리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는 등 보건 및 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음. 감염병 감시 체계 강화와 신속한 대응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p>정치·행정</p>	<p>내란</p>	<p>- 12·3 비상계엄 1주년 규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제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도의원들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내란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의힘의 침묵과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함. ·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과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촛불 집회를 개최하며 광장의 열기를 재점화함. 이들은 계엄 당시 제주가 겪었던 공포와 경제적 피해를 상기시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대한 심판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들의 연대를 호소함. <p>- 도지사 내란 동조 의혹 공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성향의 변호사와 단체들이 오영훈 지사가 계엄 당시 도청을 비우고 청사를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하자, 지역 사회 내 논란이 격화됨. 이에 대해 민주당 당원 모임 등은 고발이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오 지사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음. · 이러한 고발 사태를 두고 도의회와 정치권에서는 내란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도지사의 당시 행적에 대한 투명한 소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됨. 오 지사는 법적 대응을 위한 소송 사무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내란 동조 의혹을 일축하며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임. <p>- 4·3과 내란의 역사적 연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지사와 정치권은 12·3 비상계엄을 제주 4·3의 아픈 역사와 연결하

정치·행정	내란	<p>며, 국가 폭력과 내란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함. 4·3이 진실 규명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난 것처럼, 12·3 사태 역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논의 과정에서도 4·3 당시 이념적 낙인과 차별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가 강조되었으나, 일부 단체의 반발과 내란 프레임이 겹치며 갈등이 빚어짐. 도정은 4·3의 가치를 헌장에 담아 내란과 같은 반민주적 사태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함.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준공은 제주가 위성 개발, 제조, 발사까지 가능한 독자적인 민간 우주산업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함. 이는 제주형 우주산업 공급망(Supply Chain)의 완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제주는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를 마련함. · 제주도는 이번 제조 시설 구축을 발판으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등 '위성정보 활용(Downstream)' 분야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정부에 '위성정보 활용 클러스터' 지정을 건의하고, 관련 기업 유치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지속 가능한 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음. - 1차산업 및 신성장 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으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국비 예산을 확보, 제주산 농축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함. 또한, 오분자기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수산 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기반 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권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 예산 5억 원을 신규 확보하여, 관광·서비스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디지털·지식 기반 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획 연구에 착수함. 이는 제주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기반 사업으로, 향후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크루즈 및 교통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항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최초로 무인 자동심사대 38대가 도입되어 입국 심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이는 대규모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높여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제주는 아시아 크루즈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됨. · 서귀포항 위판장 현대화 사업 설계비 확보와 칭다오 국제 화물선 취항 등 해상 물류 및 수산 기반 시설 개선도 추진되고 있음. 다만, 칭다오 항로의 경우 물동량 부족 문제와 냉동 창고 등 배후 시설 미비가 지적되고 있어, 실질적인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프라 보강과 운영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정치·행정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축산물 싱가포르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구제역 청정 지역 지위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수출 길을 열며, 초도 물량 4.5톤을 선적하는 쾌거를 이룸. 이는 제주도와 정부, 축산 업계가 수년간 협력하여 검역 장벽을 넘은 결과로, 제주 축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수출 시장 다변화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싱가포르 내 6개 작업장이 수출 승인을 받았으며, 현지 유통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 나서고 있음. 제주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홍콩,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축산물 수출을 통해 도내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함. - 칭다오 화물선 항로와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 화물선이 취항했으나, 초기 물동량이 예상치를 밑돌며 적자 운항과 손실보전금 지급 문제가 쟁점화됨. 도의회는 수출입 물량 부족과 '빈 컨테이너' 운송 문제를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수출 물동량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항로 개설을 통해 제주산 삼다수, 용암수, 수산물 등의 중국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반대로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대량 유입 가능성에 대한 농가들의 우려도 제기됨. 도정은 물류비 절감과 운송 시간 단축 효과를 강조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출 활성화 효과를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수출 품목 발굴과 검역·통관 시스템 보완이 시급함. -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가정간편식(HMR)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여 식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단순 원물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상품 수출로 전환을 꾀하며, 이는 제주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출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 혁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시장 공략을 지원함. 또한, 제주포럼 등 국제 행사를 활용해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통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도내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가격, 감귤, 기반, 수출, 성과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산 노지감귤 가격 호조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향상에 따른 시장 가격 경쟁력 확보임.2025년산 노지감귤은 생육기 기상 여건 호조로 당도가 높고 산 함량이 낮아 소비자 선호도가 급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도매시장 경락가 역시 전년 대비 안정적인 고단가를 형성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임. · 고품질 브랜드 감귤의 소비 양극화 현상임.일반 조생 감귤 대비 당도 12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브랜드 감귤에 대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리미엄 가격 전략이 전체 감귤 시장의 가격 지지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임. - 제주 관광 물가 안정화 지수 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기반 제주형 관광 물가지수 개발임.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통계청 물가 지수와 차별화된 실질적인 관광 물가 관리를 위해 카드 데이터 등을 분석한 '제주형 관광물가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임. · 관광 물가 안정화 및 신뢰 회복 대책 시행임.외식업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고비용·불친절 이미지를 탈피하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이 전개됨.
-------	----	--

경제·관광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가격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폐지에도 수출 단가 경쟁력 유지임.정부의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제주 농협과 수출 업체들은 현지 유통 업체와의 직거래 확대 및 포장 디자인 개선 등 마케팅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출 단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해외 시장별 차별화된 가격 전략 수립임.프리미엄 시장인 북미 지역에는 고단가 전략을, 가격 민감도가 높은 동남아 시장에는 중저가 실속형 상품을 배치하는 이원화된 가격 정책을 통해 물류비 상승 압박을 상쇄하고 수출 채산성을 확보하는 전략임.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산 노지감귤 본격 수출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및 괌 등 북미·대양주 수출 선적임.조천농협과 제주감귤농협 등을 중심으로 2025년산 노지감귤의 첫 수출 선적식이 거행되었으며, 올해는 캐나다 17.6톤, 괌 8.4톤 등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미국, 러시아 등 10여 개국으로 수출 노선을 확대할 예정임. · 수출 목표 물량 전년 대비 30% 상향 조정임.2024년산 수출 실적 호조에 힘입어 올해 제주감귤농협은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1,400톤을, 조천농협은 400톤을 수출 목표로 설정하는 등 감귤 수출을 통해 내수 시장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고당도·저산도 감귤 생산 품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 대응 및 당도 향상 재배 기술임.올해는 가을철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감귤의 당도가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며, 농업기술원은 타이백 피복 재배 확대 및 수확 전 물 관리 지도를 통해 상품성을 극대화하여 비상품 감귤 발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춤. · 철저한 잔류 농약 검사 및 안전성 확보임.수출국별로 상이한 농약 안전 사용 지침(PLS)을 준수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협력하여 수확 전 단계부터 정밀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클레임 없는 완벽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감귤 가공 산업 및 품종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감류(한라봉, 레드향) 수출 품목 다변화임.12월 노지감귤 수출을 시작으로 내년 초부터는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 만감류 수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감귤류 수출을 연중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해외 고급 과일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임. · 비상품 감귤의 고부가가치 가공 식품화임.단순히 주스로 가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감귤 칩, 퓨레, 기능성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한 가공 식품 개발을 지원하여, 비상품 감귤의 시장 격리 효과를 높이고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관광 및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관광 서비스 고도화임.제주도는 관광객의 이동 경로와 소비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디지털 유목민 및 MZ세대 유입을 촉진함.

경제·관광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 붐업을 위한 여행 지원금 기반 마련임.내국인 관광객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탐나는전'과 연계한 여행 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 상반기 중 '제주 관광증'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음. - 수출 물류 혁신 및 해외 거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칭다오 항로 등 신규 물류 루트 개척임.섬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카페리 항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대중국 수출의 전진 기지로 삼아 물류비를 절감하며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물류 기반을 다지고 있음. ·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 연계 해외 사무소임.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거점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신흥 시장에 대한 마케팅 거점을 확보하고, 현지 유통망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지 교두보를 마련하였음. - 지속 가능한 농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팜 및 기후 위기 대응 농업 기반임.기후 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이동에 대비하여 아열대 과수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스마트 팜 보급 사업을 확대하여 고령화된 농촌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래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 청정 수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양식장임.제주 광어 등 주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배합 사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 처리 시설을 현대화하여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생산 기반을 강화함.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및 항공기 부품 수출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수출 실적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 산업임.메모리 반도체와 항공기 정밀 부품이 제주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수출 실적 달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과 1차 산업 중심이던 제주 경제 구조가 첨단 제조업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방증함. ·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대임.제주 내 반도체 설계 및 테스트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회복에 맞춰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 대만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며 수출 증가율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는 동력이 됨. - 농수산물식품 수출 시장의 외연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푸드 열풍을 활용한 가공식품 수출 증대임.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담은 감귤 과자, 용암수, 전통주 등이 한류 열풍을 타고 미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지 대형 마트 입점 및 판촉 행사를 통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함. · 싱가포르 및 홍콩 등 프리미엄 시장 공략임.구매력이 높은 싱가포르와 홍콩 시장을 타겟으로 항공 직배송을 통한 신선 농산물(딸기, 키위 등) 수출을 확대하고, 현지 고급 레스토랑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부가 수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경제·관광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전환 지원 사업임.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수출 경험이 부족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무역 실무 교육, 해외 규격 인증 획득, 통번역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창출함. · 해외 박람회 참가 및 무역 사절단 파견 성과임.2025년 하반기 베트남, 일본 등 주요 거점 국가에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 계약 체결 및 MOU 교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자체 중 수출 증가율 1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 전국 1위 기록임.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농수산물의 동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주도는 2025년 8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70%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의 성장세를 시현함. · 연간 수출 목표액 초과 달성 및 신기록 전망임.상반기에 이미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을 경신한 데 이어 하반기 감귤 수출까지 가세함에 따라, 당초 설정했던 연간 수출 목표액을 조기에 초과 달성하고 연말 기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 확실시됨. - 제주 관광 4대 핵심 사업 추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여행 지원금 등 내수 활성화 효과임.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확정한 4대 핵심 사업(여행 지원금, 팝업 이벤트 등)이 본격 가동되면서 감소세였던 내국인 관광객 수가 반등세로 돌아섰고, 주요 관광지의 소비 지출 데이터가 회복 신호를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냄. · 관광 불편 신고 감소 및 만족도 개선 지표임.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과 서비스 친절 교육 강화 노력의 결과로 제주 관광 불편 신고 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관광객 대상 설문 조사에서도 재방문의향 점수가 상승하는 긍정적 변화가 감지됨. - 공공 기관 및 지역 사회 협력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협과 행정의 유기적인 수출 협력임.제주도청의 행정적 지원과 지역 농협의 현장 실행력이 결합하여 물류비 중단이라는 악재를 극복하고 감귤 수출 확대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에 기여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음. · 지역 기업의 ESG 경영 및 사회 공헌 확대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및 제주관광공사 등 주요 공공 기관들이 지역 상생 프로그램과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면서, 경영 평가 등급 상승과 함께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성과를 거둬.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학생, 불법, 야적장, 차량, 중국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월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학부모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되나 민원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범죄 혐의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함. · 경찰의 수사 종결 발표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 등 교원단체는 형사적 책임 유무와 별개로 악성 민원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교육청의 관리 실패를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순직 인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제주 농어촌 유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와 교육청이 진행하는 '제주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서울 등 타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감귤 따기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 활동을 운영해 제주 생활 적응을 돕고 있으며 참가 가구의 연장 신청률이 80%를 넘는 등 호응을 얻음.
-------	----	--

지역·사회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광수 교육감은 농어촌 유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으며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 천연잔디 학교 환경을 활용한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정책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힘. - 미래 교육 및 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열어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제주여상 급식실에 전국 최초로 AI 기반 조리 로봇을 도입해 조리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급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함. · 서귀포시는 취약계층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미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제주대학교는 학생증에 지역화폐 ‘탐나는전’ 기능을 탑재한 ‘지역화폐 학생증’을 도입해 학생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협약을 체결함.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대상 불법 관광 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를 찾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를 노린 무등록 여행업과 렌터카 불법 유상 운송 및 무자격 가이드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자치경찰단이 집중 단속을 벌여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 6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조치를 취함. · 적발된 불법 영업 다수는 중국 SNS를 통해 저가로 관광객을 모집한 후 승합차로 이동하며 부당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었으며 자치경찰단은 중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함. - 중국산 의약품 불법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SNS인 위챗을 이용해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을 상대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온 중국 출신 귀화자 등 일당이 해양경찰에 검거됐으며 이들은 택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약품을 유통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음.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 총액과 판매채널을 특정해 검거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34종 1만 7000여 정의 불법 의약품을 압수했으며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산림 및 가축 불법 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등 도내 산림에서 약재로 쓰이는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 약 7톤을 무단으로 벗겨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해 2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5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의해 구속 송치됐으며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하는 등 산림 훼손이 심각함. · 제주시 조천읍의 한 관광 승마장에서 말을 불법 도축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별도로 꽃자왈 지역 곳곳에서 건축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등이 무단으로 투기되고 있는 실태가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드러나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지역·사회	야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토평공업단지 대형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일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내 폐목재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인근 건물로 확산되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5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 · 야적장에 쌓인 막대한 양의 폐목재로 인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완전까지 약 42시간이 소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야적장과 인근 창고 건물 4개 동 및 파쇄 설비 등이 불에 타는 등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화재 원인 조사 및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발생 당일 보일러 수리 작업이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과거에도 해당 업체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됨. · 폐목재 야적장은 내부 열 축적으로 인한 자연 발화 위험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번 사고로 다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유사 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점검 강화와 화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도 천진항 렌터카 돌진 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60대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 승합차가 하선 직후 갑자기 돌진해 대합실 인근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운전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함. · 사고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브레이크 등 미점등 정황 등을 포착했으며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차량 결함 여부 규명을 위한 사고기록장치(EDR) 등 압수물에 대한 정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시함. - 교통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시행 중인 ‘현금 없는 버스’에서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는 승객들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도는 계좌이체 방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교통카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에서 자율주행 무료 택시 ‘탐라자율차’가 운행되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자치경찰단은 AI 기반 스마트교차로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주요 혼잡 도로의 신호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통행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 강풍 피해 및 음주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전역에 강풍 특보가 발효되면서 제주공항 인근 공사장 가설물이 날아와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고 도로 신호등과 반사경이 쓰러지는 등 차량 및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으며 공사장 작업자가 추락하는 등 인명 피해 사고도 발생해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림.

지역·사회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경찰관이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등 음주운전 특별 단속 체제에 돌입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함.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질서 위반 및 미등록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되지 않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렌터카 불법 유상 운송과 무자격 가이드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자치경찰단이 이를 집중 단속하고 주제주 중국총영사관과 협력해 관광객들에게 불법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기로 함. · 제주 지역 내 미등록 외국인 중 중국인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의 범죄 연루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입국 규제를 유예해 주는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고 있음. - 무면허 의료 행위 적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면허 없이 중국 SNS를 통해 모집한 불법 체류자 등을 상대로 레이미네이트 등 치과 시술을 해온 중국인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보건 의료 체계를 교란하고 환자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시함. · 이번 사건들은 폐쇄적인 외국인 커뮤니티 내에서 SNS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요구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